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윤리와 사상

1.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유일한 실체인 신의 유한한 양태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인 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영원한 필연성에 의해 자신과 신과 사물을 파악하며, 항상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여기에 이르는 길은 험난하고 드뭅니다. 그런데 모든 고귀한 것은 드물 뿐만 아니라 어려운 법입니다.



- ①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인 신을 이성을 통해 인식하려고 힘쓴다.
- ② 모든 감정과 욕망을 버리고 초월자인 신의 명령에 복종한다.
- ③ 모든 것의 창조주인 인격신이 부여한 계율을 철저히 따른다.
- ④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유롭게 삶의 목적과 방법을 택한다.
- ⑤ 신이 부여한 자유 의지를 통해 삶의 필연성을 극복해 나간다.

2.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인간의 도덕성 발달은 정의 윤리가 놓친 배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되어야 한다. 배려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처지에 걸맞는 도움을 주어야 하며, 배려받는 사람 또한 상대방의 도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가 발휘되기 힘들 때 요청된다. 의무감에서 남을 돕는 윤리적 배려보다는 욕구와 성향에 따라 남을 돕는 자연적 배려가 도덕적으로 선호된다.

- ① 배려 윤리는 사람들 간의 상호 의존성과 유대감을 중시한다.
- ② 배려보다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③ 자연적 배려는 이성애에 의해 동기가 부여됨으로써 실천된다.
- ④ 자연적 배려는 모성애와 같은 윤리적 배려에 근거하고 있다.
- ⑤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는 서로 배타적이어서 양립할 수 없다.

3.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일단 신민이 된 사람은 주권자에게 저항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한 것이 국가인 만큼, 이론적으로 주권자의 행위는 곧 신민 자신의 행위이다. 한번 계약을 맺으면 파기할 수 없다.

을: 누구나 자유롭게 평등한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판정할 공평한 재판관이 없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람들의 동의로 정부가 구성되며, 이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의 보존을 주목적으로 한다.

- ① 구성원의 안전 보장이 사회 계약 체결의 결과임을 모르고 있다.
- ② 사회 계약이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다.
- ③ 사회 계약의 안정성은 국가 권력의 강제력에 비례함을 모르고 있다.
- ④ 자기 보존 욕구의 실현이 사회 계약 합의를 위한 토대임을 간과한다.
- ⑤ 계약을 위반한 정치권력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 정당함을 간과한다.

4.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덕이 영혼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고 필연적으로 유익하다면, 그것은 앎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유익하지도 유해하지도 않지만, 앎이 더해지느냐 무지가 더해지느냐에 따라 유익하게도 유해하게도 되기 때문이다.

<문제 상황>

고등학생 A는 최근 TV 방송을 보다가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 소식을 들었다. A는 '나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부를 할지 망설이고 있다.

- ① 남을 돕는 것은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 ② 남을 돕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③ 남을 돕는 행위는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 ④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실천 의지를 길러야 합니다.
- 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나의 행복과 무관함을 알아야 합니다.

5.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 (가) | ○ 천지만물은 모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侍天主]. 새의 울음소리 역시 시천주 소리이다. ○ 개벽(開闢)의 운이 회복되었으니, 우리 도(道)의 덕을 세상에 펼쳐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한울이 명하신 바이다. |
| (나) | 제자: 새로운 개벽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 ㉠ |

- ① 일원상(一圓相)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일상에서 수행하라.
- ② 남녀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미물(微物)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 ③ 모든 규범을 버리고 자연을 따르면서 사람을 하늘처럼 섬겨라.
- ④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천주교의 교리를 신봉하고 지켜라.
- ⑤ 유교적 도덕과 신분 질서를 따르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배워라.

6. 그리스도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간의 행복은 신에 대한 완전한 인식, 신의 향유, 그리고 신과의 합일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우리는 신의 은총을 통해 지상의 나라에서 벗어나 신의 나라로 갈 수 있다.

을: 교황의 이름으로 된 면벌부를 사게 되면 죄의 형벌을 면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인간에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은 완전한 회개를 통해 사면과 신의 은총을 충분히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

- ① 갑: 신은 선악을 포함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절대자이다.
- ② 갑: 인간은 신을 이성적으로 향유함으로써 완전한 행복에 이른다.
- ③ 을: 인간은 자유 의지만으로도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④ 을: 성서만이 진리이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 ⑤ 갑, 을: 개인의 신앙보다 교회의 종교적 권위가 더 중요하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7~8] 갑, 을은 한국 유교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氣)가 발하고 이(理)가 그것에 탄 것이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본 연후에 측은해 하는 마음[惻隱之心]이 발현한다. 그 어린아이를 보고 측은해 하는 것은 기이니 이것이 이른바 기가 발한다는 것이요, 측은해 하는 마음의 근본은 인(仁)이니 이것이 이른바 이가 탄다는 것이다.

을: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른 것이며,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에 탄 것이다. 기가 따르지 않는 이는 드러날 수 없고 이가 타지 않는 기는 이기적 욕심에 빠지게 된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는 것은 마음이 외부의 자극을 받은 것이고, 측은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정(情)이 움직인 것이다.

7. 다음의 학생이 적절한 대답을 했다고 할 때, ㉠에 들어갈 수 있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교사: 갑, 을은 사단과 칠정을 이나 기와 관련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단과 칠정은 각각 ‘도덕 감정’과 ‘일반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갑, 을의 입장에 대해 말해 볼까요?

학생: _____ ㉠

—<보 기>—

- ㄱ. 갑은 도덕 감정을 일반 감정의 순전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 ㄴ. 을은 도덕 감정과 일반 감정의 연원[所從來]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 ㄷ. 갑은 을과 달리 측은해 하는 마음을 기가 발하여 드러난 도덕 감정으로 봅니다.
- ㄹ. 갑, 을은 사랑[愛]이라는 일반 감정과 측은해 하는 마음이 사실상 별개로 분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덕(四德)은 사단을 확충한 것이다. 확충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면 인의예지라는 이름[名]은 끝내 성립할 수 없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고 측은해 하면서도 가서 구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에 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① 사덕을 모든 사람이 지닌 마음의 기호(嗜好)로 보아야 한다.
② 사덕을 사단의 확충 이전에 마음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사단을 사덕이 마음에 있음을 알게 해 주는 단서로 보아야 한다.
④ 사단을 일상에서 선을 실천해야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사단을 사덕의 시작[始]이 될 수 있는 선한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9. 다음 사회사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보장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이 사회는 포괄적인 종교적·철학적·도덕적 교의가 지배하는 공동체와 구별되며, 정의에 대한 합리적 견해가 구성원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수용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이다. 안정적인 정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념들이 중첩되는 지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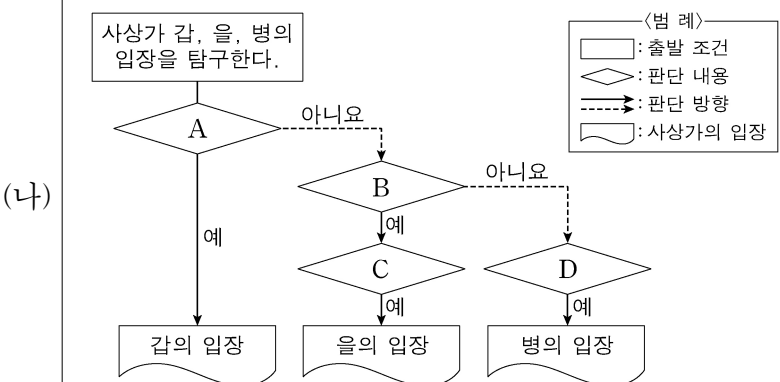
—<보 기>—

- ㄱ. 국가는 다양한 신념체계를 단일한 신념체계로 통합해야 한다.
- ㄴ. 국가는 시민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때 개입해야 한다.
- ㄷ. 국가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구성적 공동체이다.
- ㄹ. 국가는 공적 의사 결정에서 구성원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각각의 분배의 영역에서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정의롭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에 따라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을: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재화의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병: 개인들은 그들의 자연적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다. 어떤 것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경우 이로부터 유출되는 모든 것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보 기>—

- ㄱ. A: 한 분배 영역의 가치가 다른 분배 영역의 가치를 지배해야 하는가?
- ㄴ. B: 자연적 우연성에 의한 불평등은 사회 제도에 의해 개선되어야 하는가?
- ㄷ. C: 모든 사람의 경제적 처지를 향상시킨다면 공정한 기회 균등을 제한할 수 있는가?
- ㄹ. D: 소유물의 취득과 이전이 정당하다면 빈부의 격차도 정당한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1. 고대 서양 사사가 갑은 긍정, 근대 서양 사사가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국가는 자연의 창조물이며 완성된 형태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국가를 떠나 살 수 있는 자는 신이거나 짐승뿐이다. 인간은 본래 국가를 필요로 하며, 국가를 떠나서는 어떠한 참된 정의도 존재할 수 없다.
을: 정부는 시민에게 유용하지 않았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적 복종의 동기는 구성원들이 정부를 통해 평화와 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느끼는 이익 관념에 기초한다. 만약 이 이익이 사라지면 복종의 의무도 사라진다.

- ① 최선의 삶을 구현하려는 인간의 본성이 정치적 의무의 근거인가?
- ② 다수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의감이 정치적 의무의 근거인가?
- ③ 국가가 인권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이 정치적 의무의 근거인가?
- ④ 구성원들의 명시적 동의가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의 근거인가?
- ⑤ 정부의 공공재 제공에 따른 혜택의 향유가 정치적 의무의 근거인가?

12. (가)의 중국 유교 사사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
|-----|--|
| (가) | <p>갑: 자식과 부모에게는 자식과 부모의 이치[理]가 있고, 신하와 군주에게는 신하와 군주의 이치가 있다. 사람의 양지(良知)는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그 이치를 궁구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p> <p>을: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효(孝)의 이치를 부모에게서 찾을 수는 없다. 신하가 군주를 섬길 때 충(忠)의 이치를 군주에게서 찾을 수는 없다. 내 마음의 양지를 사물 하나 하나에 온전하게 실현해야 한다.</p> |
| (나)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

<보기>
ㄱ. A: 양지는 하늘이 부여한 성(性)이자 내 마음의 본체이다.
ㄴ. B: 양지는 군자와 소인의 구별 없이 모두 가지고 태어난다.
ㄷ. B: 양지의 발현을 통해 타고난 성정(性情)을 바로잡는다.
ㄹ. C: 양지는 실천[行]과 서로 별개가 아니라 본래 하나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3.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질제란 쾌락과 욕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는 지혜나 용기와 달리 나라 전체에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갑

절제란 쾌락의 과도함과 모자람, 즉 방탕과 무감각이라는 두 악덕 사이의 중용입니다. 또한 절제는 본성에 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며, 습관에 의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을

<보기>

ㄱ. 갑: 절제는 이성이 욕망을 다스려야 갖출 수 있는 덕이다.
ㄴ. 갑: 절제는 개인의 영혼과 관계없는 공동체의 탁월함이다.
ㄷ. 을: 절제는 실천적 지혜가 없다면 형성될 수 없는 덕이다.
ㄹ. 갑, 을: 절제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덕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4. 고대 동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지인(至人)은 무기(無己)이다. 그러므로 그는 천지 본연의 모습을 타고 여섯 가지 기의 변화를 제어하여 무궁한 세계에 노닌다[遊]. 그러니 도대체 무엇에 의존할 것이 있겠는가!
을: 물질[色]은 무아(無我)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한다.

<보기>

ㄱ. 갑은 자신에 얽매이지 말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ㄴ. 갑은 만물의 타고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긍정해야 한다고 본다.
ㄷ. 을은 항상 변화하는 현상 세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세계를 주재하는 절대적 존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 근대 서양 사사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인간은 선입견 때문에 진리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입견에서 벗어나 진리를 파악하려면 먼저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여 인식의 제1원리를 찾아야 한다.
을: 인간의 지성을 고질적으로 사로잡고 있는 우상은 인간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진리를 얻을 수 없게 한다. 인간은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학문을 혁신할 수 있다.

- ① 갑은 관찰과 실험을 진리 탐구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본다.
- ② 갑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③ 을은 진리 탐구의 과정에서 지성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감각적 경험은 객관적 지식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⑤ 갑과 을은 실제적 유용성을 지닌 지식만을 참된 지식으로 본다.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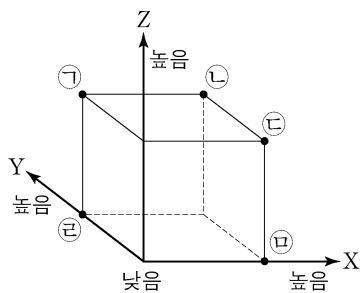
갑: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길 바라지 말고,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도록 해라. 죽음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이 두려운다는 믿음이 두려운 것이다.
을: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안도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대체 불가능한 각자의 고유성을 자각하는 것이다.

- ① 갑: 두려움은 주관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정념이다.
- ② 갑: 죽음의 공포는 최고의 정신적 쾌락을 누릴 때 극복된다.
- ③ 을: 인간만이 죽음을 예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다.
- ④ 을: 불안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⑤ 갑, 을: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17. 갑, 을은 고대 중국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그 존재 정도만 알려져 있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칭찬하며,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성인(聖人)은 무위(無爲)하지만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을: 가장 훌륭한 도(道)가 행해지면 천하는 모두의 것[公]이 된다. 현명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유능한 자에게 관직을 주며 신의와 화목을 가르친다. 홀아비와 과부, 고아와 홀로 남은 노인이 모두 보살핌을 받는다.



- X: 인륜과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
- Y: 규모가 작은 정치 공동체를 지향하는 정도
- Z: 지도자의 적극적 역할 [有爲]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도덕과 입법의 기본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이성과 법의 손길로 더없이 행복한 구조를 세우려는 목적을 지닌 체계의 토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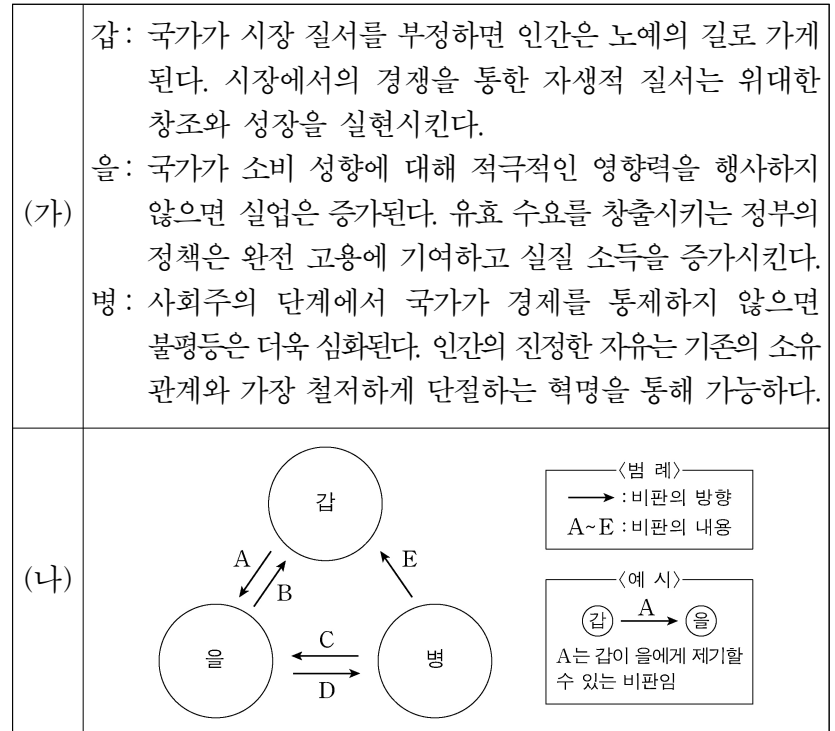
을: 행복의 원리가 준칙들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결코 의지의 법칙들로 쓰일 준칙들을 제공할 수는 없다. 행위의 도덕성은 오직 보편적 도덕 법칙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보 기>

- ㄱ. 갑: 도덕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 ㄴ. 을: 도덕의 목적은 모든 이성적 존재들의 행복 증진이다.
- ㄷ. 을: 의무가 문제일 때는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 ㄹ. 갑, 을: 보편적 도덕 원리를 따라야 도덕적 행위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의 사회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해 사적 소유를 인정해야 함을 무시한다.
- ② B: 시장 실패의 극복을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무시한다.
- ③ C: 시장을 통해 사익과 공익을 일치시켜야 함을 무시한다.
- ④ D: 경제적 불평등은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해소되는 것임을 간과한다.
- ⑤ E: 국가의 역할은 자유 경쟁의 원리 실현에 있음을 간과한다.

20. 고대 중국 사상이 갑, 을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놓아둔 채 따르지 않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 모르니 슬프다. 학문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放心]을 찾는 것이다.

을: 예(禮)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규범이고 강하고 굳세지는 근본이며, 위세를 떨치는 길이고 공적과 명성을 올리는 요체이다. 군주가 예를 따르면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직을 훼손시키게 된다.

<보 기>

- ㄱ. 사람은 누구나 수양을 통해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가?
- ㄴ. 예는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성인이 제정한 것인가?
- ㄷ. 통치자의 덕성에 의해 백성을 교화(教化)하여야 하는가?
- ㄹ. 자신을 닦아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군자를 추구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